

1.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, 가로날도끼 등의 도구와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고, 대표적인 유적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한 석기가 출토된 연천 전국리 유적이 있다. [O I X]
2. 강원 양양 지경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자리로, 이 시대의 움집 자리는 대개 직사각형이고 화덕의 위치도 벽면 쪽에 치우쳤다. [O I X]
3.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이 등장하였다. [O I X]
4.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과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견된 반량전 등을 통해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. [O I X]
5. 단군 신화가 기록된 문헌으로는 『삼국유사』, 『동국이상국집』, 『제왕운기』 등이 있으며, 잔무늬 거울·비파형 동검·미송리식 토기 등을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. [O I X]
6.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진개의 침입 - 위만의 집권 - 요동 동부도위 섭하 살해 - 왕검성 함락 순서이다. [O I X]
7. 왕이 죽으면 껌묻거리와 함께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와 10월에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지내던 국가는 공통적으로 '형사취수제'의 혼인 풍습이 있었다. [O I X]
8. 민며느리제와 골장제의 풍습이 있었던 국가는 껌리는 것이 많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고, 단궁·과하마·반어피 등의 특산물에 생산되었다. [O I X]
9. 5월과 10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국가에서는 남자가 일정 기간 처가에서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풍속이 있었다. [O I X]
10. 고구려의 진대법 실시와 평양 천도 사이에는 '관구검의 환도성 함락', '모용황의 고구려 침입', '신라의 왜구 격퇴', '백제의 웅진 천도' 등의 사건이 있었다. [O I X]
11. 백제는 고이왕 때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6좌평 16관등제의 골격을 마련하였으며,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부여로 천도하고 22부의 관부를 설치하였다. [O I X]

12. 백제의 수도가 웅진이었던 시기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고, 미륵사를 창건하고 미륵사지 석탑을 건립하였다. [O I X]
13. 신라에서 마립간 왕호를 사용하던 시기에 왕위는 박·석·김의 3성이 교대로 차지하였으며,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. [O I X]
14. 백제가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던 시기에 고구려는 지두우를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였다. [O I X]
15.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한 신라 국왕 재위기에 이사부의 건의로 『국사』를 편찬하였으며, 금관가야를 정복한 국왕 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. [O I X]
16. ‘건원’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, 상대등을 설치한 신라의 국왕은 백제를 통하여 중국 양나라와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. [O I X]
17. 7세기의 주요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살수대첩 - 백강 전투 - 천리장성 완성 - 백제 장군 윤춘의 대야성 공격 - 안시성 전투의 순이다. [O I X]
18.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한 사이에 ‘황산벌 전투’, ‘당의 계림도독부 설치’, ‘백강 전투’, ‘소부리주 설치’ 등의 사실이 있었다. [O I X]
19.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국왕 재위기에는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고, 중앙군을 9서당으로 개편하였으며, 달구벌 천도를 시도하였다. [O I X]
20. 신분에 따라 색복, 옥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가하는 사치 금령 조치를 내린 국왕 대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였다. [O I X]
21.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난 국왕 재위기에 귀족권의 강화로 녹읍이 부활하였으며, 위홍 등이 향가를 모아 『삼대목』을 편찬하였고,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. [O I X]
22. 발해국왕 대무예 때 일본에 ‘고려국왕’, ‘천손’의 표현이 담긴 국서를 보냈으며,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. [O I X]
23. 발해 국왕 대흥무 때는 당으로부터 ‘해동성국(海東盛國)’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하였고, ‘건흥’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. [O I X]

24. 고구려의 옥살과 처려근지, 백제의 방령과 군장, 신라의 군주와 당주 등 지방관은 군사 지휘관을 겸하였다. [O I X]
25. 신라 민정 문서는 3년마다 토지 변화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, 호는 9등급으로 나누고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. [O I X]
26. 장보고는 당나라 정부의 용인 하에 회역사라는 교역 사절단을 파견하고 교관선을 보내 무역하였다. [O I X]
27.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으며,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며 3배로 배상하고 금고형에 처하였다. [O I X]
28. 김대문과 같은 신라의 신분층은 식읍·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고, 최치원과 같은 신분층은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아찬으로 제한되었다. [O I X]
29. 진골 출신 설총은 신문왕에게 ‘화왕계’라는 글을 바치고 불교를 ‘세외교’라고 비판하였으며, 김대문은 『한산기』, 『계원필경』, 『고승전』 등을 저술하였다. [O I X]
30. 불교의 여러 이론(異論)을 10문으로 정리하여 『십문화쟁론(十門和爭論)』을 지은 승려는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였다. [O I X]
31. 주로 단장(單葬)의 형태인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은 대개 마립간 시기에 제작되었고, 발해 정효공 주묘는 굴식돌방무덤으로서 모줄임 천장구조로 건축되었다. [O I X]
32. 미륵사지 석탑은 소정방이 쓴 평제문이 새겨져 있어 ‘평제탑’이라고 불리며, 불국사 다보탑에서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. [O I X]
33.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볼 수 있는 문화재로는 영광탑, 이불병좌상, 상경성의 주작대로, 정혜공주 묘 등이 있다. [O I X]
34. 신라 하대에는 ‘분립문자’, ‘건성오도’ 등을 중시한 선종이 유행하였고,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등 팔각원당형의 승탑이 건립되었다. [O I X]
35.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으며, 원효, 강수,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. [O I X]

36. 궁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설치하고 9관등제를 실시하였으며, 견훤은 오월(吳越)과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추진하였다. [O I X]
37. 대상(大相) 준흥, 좌승(佐丞) 왕동을 모역죄로 숙청한 고려의 국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는 노비안검법과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공부법을 실시하였다. [O I X]
38.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은 관리임명 및 법령의 개폐 동의권을 행사하였고, 송의 관제를 수용한 중추원은 원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. [O I X]
39. 고려 시대 지방 5도에는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는 관찰사가 파견되었고, 국방상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. [O I X]
40. 우봉·파평 등의 지역에 감무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국왕 재위기에 묘청 등의 서경파가 국호를 대위, 연호를 천개로 정하고 반란을 일으키고, 김부식이 『삼국사기』를 편찬하였다. [O I X]
41.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도방을 부활시켜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으며, 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. [O I X]
42.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동북 9성을 획득하였고 윤관은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물리치고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. [O I X]
43. 김사미·효심의 난과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는 망이·망소이의 난, 교정도감 설치, 박서의 귀주성 전투, 원의 쌍성총관부 설치 등이 있다. [O I X]
44. 충렬왕은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고, 충선왕은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. [O I X]
45.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 국왕은 7품 이하의 참하관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였다. [O I X]
46. 공민왕 대에는 홍건적이 침입해 와서 왕이 복주까지 피난하기도 하였으며,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. [O I X]
47.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,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한 국왕 대 명의 철령위 설치 요구에 대항하여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. [O I X]

48. 시정 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전시를 지급하였으며, 경정 전시과는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. [O I X]
49. 고려 시대에는 조, 콩, 보리를 재배하는 2년 3작이 점차 보급되었고, 고려 말기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앙법이 시작되었다. [O I X]
50. 고려 시대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였으나 제도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, 외거 노비는 재산을 늘려 양인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었다. [O I X]
51. 고려 시대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과 빈민 구제를 위해 제위보를 설치하였고,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. [O I X]
52. 고려 시대에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,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. [O I X]
53. 고려 시대 인종 대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문 강좌인 7재를 9재 학당으로 정비하였고, 충렬왕 때에는 경사(經史)에 능한 교수들을 도감에 소속시켜 참하관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. [O I X]
54. 김부식의 『삼국사기』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. [O I X]
55.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,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고, 요세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. [O I X]
56.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부처의 힘을 빌려 적을 물리치고자 만들었으며,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기에 판각된 재조대장경을 가리킨다. [O I X]
57.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다포식 양식 건물에 해당하며,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과는 달리,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. [O I X]
58. 임춘은 술을 의인화한 「국순전」을 저술하여 현실을 풍자하였고, 이인로는 「파한집」에서 개경, 평양, 경주 등 역사적 유적지의 풍속과 풍경 등을 묘사하였다. [O I X]

59. 조선 시대 한양에는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,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고, 유교사상인 인·의·예·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. [O I X]
60. 『불씨잡변』을 저술한 인물은 역사서인 『고려국사』, 조선 왕조의 정치 조직에 대한 초안을 담은 『경제문감』을 저술하였고, 경복궁을 비롯한 한양 도성의 건설 책임자로 활동하였다. [O I X]
61.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고, 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6진을 설치 하였으며,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. [O I X]
62. 『동문선』, 『경국대전』 등이 편찬된 국왕은 도첩제와 유향소를 폐지하였고, 수신전과 출양전 을 몰수하는 토지 제도를 마련하였다. [O I X]
63. 사간원은 시정을 논평하고 모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하였고, 사헌부는 임금 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질문을 관장하였다. [O I X]
64. 문과(대과)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,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 시·복시·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로였다. [O I X]
65. 중종 때 체결된 임신약조에서는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5척, 세사미두는 100척으로 정하였고, 광해군 때 체결된 기유약조에서는 세견선 20척, 세사미두 100척으로 정하였다. [O I X]
66. 위훈 삭제가 빌미가 되어 일어난 기묘사화로 인해 처형된 조광조는 공납 제도를 시정할 것과 초제를 지내는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. [O I X]
67. 『이륜행실도』가 편찬된 국왕 재위기에 이황의 활약으로 백운동 서원에 소수 서원이라는 편액 이 내려졌고, 임궽정의 난이 진압되었다. [O I X]
68. 동·서 분당 당시 심의겸 쪽에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, 이황, 조식의 문인들이 가세하 였고, 김효원 쪽에는 이이, 성혼의 문인이 가담하였다. [O I X]
69. 광해군 재위기에는 복인이 집권하여 중립외교를 펼쳤고, 명이 모문룡(毛文龍) 부대를 압록강 입 구의 가도(假島)에 주둔시켰다. [O I X]
70. 기해예송은 효종 사후 자의대비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,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 싸고 일어난 것으로 1년복을 주장한 봉당은 경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였다. [O I X]

71.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,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섰고,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. [O I X]
72. 정묘호란 때 인조와 봉림대군은 강화도로 가던 중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고, 병자호란 이후에는 정절을 잃은 부녀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. [O I X]
73. 조선 시대 과전법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고, 관리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. [O I X]
74. 세종 대 제정된 공법(貢法)으로 전세는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으며,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. [O I X]
75.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으며,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. [O I X]
76.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인 「안동권씨 성화보」가 편찬된 시기에는 재가(再嫁)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도 관직 진출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. [O I X]
77.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후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사고, 성주사고, 전주사고 등 4대 사고에 보관되었다. [O I X]
78. 『성학십도』를 집필한 인물은 향촌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안향약을 만들었으며,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. [O I X]
79. 세종 재위기에는 경자자(庚子字), 갑인자(甲寅字)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고,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『향약집성방』이 편찬되었다. [O I X]
80. 화포의 제작법, 사용법을 기록한 『총통등록』이 편찬된 국왕 대에 『팔도지리지』에 『동문선』의 시문 등을 첨가·종합한 『동국여지승람』이 편찬되었다. [O I X]
81.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소박한 모양의 분청사기가 주로 제작된 시기에 인물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는 강희맹의 「고사관수도」가 그려졌다. [O I X]
82. 조선 후기 비변사는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으로 발전하였다. [O I X]

83. 수어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방의 국방과 방비를 담당하였고, 어영청은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되었으며 북벌의 본영으로 기능하였다. [O I X]
84. 허적의 서자 허건의 역모 사건이 발미가 되어 일어난 ‘환국’의 결과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. [O I X]
85. 『속대전』, 『속오례의』 등이 편찬된 국왕 재위기에 군역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고, 압של형·낙형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다. [O I X]
86. 문체반정을 통해 연암 박지원 등의 참신한 문장을 비판한 국왕 재위기 제언절목을 반포하고, 국영 시범 농장으로서 대유둔과 축만제둔을 설치하였다. [O I X]
87. 내수사와 국방 소속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킨 국왕 재위기에 정약옹이 중앙 행정조직 개혁을 위한 『경세유표』를 저술하였다. [O I X]
88. 조선 통신사는 일본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파견을 요청하였으며, 숙종 때 ‘서쪽으로는 압록강,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.’라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. [O I X]
89.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은주시청합기, 삼국점양지도,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, 이범윤의 보고문 등이 있다. [O I X]
90. 공납을 전세화한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의 현물납부가 완전 소멸하였으며, 유치미의 감소 및 상납미의 증가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. [O I X]
91. 영조 대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고,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. [O I X]
92. 조선 후기에는 벼·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 보리농사가 성행하였고, 새로운 지대 관행으로 일정 액수를 지대로 납부하는 도조법이 확산되어 갔다. [O I X]
93. 경강상인은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주도하였고, 송상은 ‘송방’이라는 전국적 조직을 바탕으로 개항기에 해상공국으로 발전하였다. [O I X]
94. 정조 대의 ‘신해통공’으로 육의전을 포함한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여 사상 도고의 상권이 크게 확대되었다. [O I X]

95. 조선후기에 이르러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형제자매가 분당하여 제사를 윤회 봉사하는 횡수가 증가하였다. [O I X]
96. 19세기 평안도 지역의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으며,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. [O I X]
97.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면서 기의 차별성을 강조한 학파의 대표적 인물로는 박지원, 박제가, 홍대용 등이 있다. [O I X]
98. 유수원은 『우서』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고, 정약용은 『경세유표』에서 형옥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. [O I X]
99. 『주해수용』을 저술한 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하였으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며 성리학적 화이관을 비판하였다. [O I X]
100. 이긍익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『연려실기술』을 편찬하였고, 안정복은 『동사강목』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. [O I X]
101. 신라와 발해를 처음으로 '남북국 시대'로 규정한 학자는 정조 때 이덕무, 박제가, 서이수와 함께 규장각 4검서(檢書)로 이름이 났다. [O I X]
102. 최한기는 『기축체의』·『지구전요』를 저술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설을 소개하였고, 정약용은 역학의 원리를 설명한 『기기도설』을 저술하였다. [O I X]
103. 종인들이 인왕산, 삼청동 등에서 시사(詩社)를 결성하며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던 시기에 서민들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를 통해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. [O I X]
104. 김홍도는 궁정 화가로서 정조의 어진과 의궤 등의 기록화를 많이 그렸으며, 김득신은 「월하정인」 등과 같은 도시인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속을 묘사한 풍속화를 그렸다. [O I X]
105.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환국에서 당오전을 발행하였고,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. [O I X]
106.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궁과 외규장각 등을 불태웠고, 신미양요 당시 양현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[O I X]

107. 조·일 수호 조규(강화도 조약)와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관세 조항이 포함되었고, 1883년의 조·일 통상 장정에는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 규정이 명기되었다. [O X]
108. 조선이 개항 이후 파견한 사절단은 1차 수신사 - 조사 시찰단 - 2차 수신사 - 보빙사 - 영선사의 순으로 파견되었다. [O X]
109. 임오군란에는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으며,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인 주둔이 허용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. [O X]
110.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고 하였고, 각 도의 환곡 제도 폐지, 해상공국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. [O X]
111. 갑신정변 이후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고,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. [O X]
112.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황토현 전투 - 황룡촌 전투 - 전주 화약 - 집강소 설치 - 우금치 전투의 순서대로 전개되었다. [O X]
113. 박영효·김홍집 연립 내각이 구성된 이후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였다. [O X]
114. 개항기 개혁 정책은 은 본위 화폐 제도 실시 - 한성사범학교 설립 - 단발령 발표 - 지계 발급 사업 순으로 전개되었다. [O X]
115. 독립 협회는 임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, 대한 제국은 '대한국 국제'를 발표하여 황제에게 육·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. [O X]
116.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철, 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을 조직하였고,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와 일제의 침략상을 온 세계에 알렸다. [O X]
117.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으며,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주장한 대한 자강회는 대성학교, 오산학교를 건립하였다. [O X]
118. 조·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따라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고,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는 압록강, 두만강, 울릉도 산림 벌채권과 운산 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. [O X]

119. 찬양회가 '여권통문'을 발표한 시기에 제물포에서 인천까지 기차가 운행되었고,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었으며, 덕수궁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건립되었다. [O X]
120.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층의 계몽을 도모하였으며, 만세보는 오세창 등 천도교 측에서 발행하여 일진회 등의 매국 행위를 비판하였다. [O X]
121. 최초의 사립학교인 육영공원은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, 외국어·자연 과학·국제법 등 근대 학문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. [O X]
122. 한·일 의정서는 러·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, 일본이 대한 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고, 한·일 신탁약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. [O X]
123. 1910년대 일제는 일본은 광산·어장·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고, 치안 유지법을 통해 언론·집회·결사를 탄압하였다. [O X]
124. 1910년 대 전개된 토지조사사업에서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였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리왔던 입회권과 도지권은 부정하였다. [O X]
125. 독립 의군부는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고, 대한 광복회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되어 조직되었다. [O X]
126. 연해주에서는 의병과 계몽 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권업회를 조직하였고,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. [O X]
127.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를 운영하였고,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. [O X]
128.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전개된 독립 운동으로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'문화 통치'로 바꾸었고,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. [O X]
129. 김익상, 오성륜 등이 상해 황포탄 부두에서 일본 육군 대장 타나카를 저격한 사건과 관련된 단체는 일부 구성원을 황푸 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. [O X]
130. 일제는 봉오동 전투·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독립군은 물론 조선인 양민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. [O X]

131. 남만주 지역에서 양세봉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. [O I X]
132.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부대인 한국 광복군은 인도,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고,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. [O I X]
133. 형평운동은 평양에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해방 직전까지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. [O I X]
134. 신간회는 갑산 화전민 부락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총독부에 요구하였고, 신간회의 민족주의자들은 조직 구성에서 단체가입제 대신 개인가맹제를 주장하였다. [O I X]
135. 일제 강점기 서울 외곽 변두리에는 토막촌이 형성되었으며, 상류층의 문화 주택, 중류층의 개량 한옥 등이 등장하였다. [O I X]
136. 조선어 학회는 한글 기념일인 ‘가갸날’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,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으며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다. [O I X]
137. 대한매일신보에 「독사신문」을 연재한 인물은 민족정신으로서 국혼을 강조하였고, 『한국통사』와 『한국독립운동지혈사』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. [O I X]
138. 문일평은 ‘조선심’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으며, 백남운은 『조선사회경제사』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. [O I X]
139. 해방 이후 혼란 수습을 위해 전국 각지에 치안대를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정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‘조선 인민 공화국’을 선포하였다. [O I X]
140. 해방 공간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신한공사 설치 - 이승만의 정음 발언 - 좌우합작 7원칙 발표 -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개원의 순이다. [O I X]
141. 김구의 ‘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’이란 글이 발표되고 난 이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하였고,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. [O I X]

142. 6·25 전쟁 과정에 발생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유엔군 참전 - 인천 상륙 작전 - 맥아더의 유엔군 총사령관직 해임 - 흥남 철수 작전 - 1·4 후퇴 -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순서이다. [O X]
143.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성립 - 토지 개혁 실시 - 조선 인민군 창설 -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성립 순이다. [O X]
144. 사사오입 개헌과 4·19 혁명 사이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이 공포되었고,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당수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. [O X]
145. 박정희 정권 때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한·일 국교 정상화 - 8·3 긴급 금융 조치 - 국민 교육 헌장 발표 - 7·4 남북 공동 선언 - 유신 헌법 공포의 순이다. [O X]
146.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, 헌법재판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. [O X]
147.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금융 실명제와 지방 자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, 경제 협력 개발 기구(OECD)에 가입하였다. [O X]
148. '저금리, 저달러, 저유가'의 3저 호황을 통해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한 정부 시기에 국제노동 기구(ILO)에 가입하였다. [O X]
149. 7·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, 평화,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와 함께 이를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. [O X]
150. 남북 간 통일 정책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분단 이후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,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,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, 금강산 육로 관광 개시의 순서이다. [O X]